

## 轉換期를 맞는 姿勢

— 技術部署의 '82年度 運營計劃을 보고 —

“激動하는 世代”라는 表現이 있지만, 이러한 表現에 걸맞게 우리 周邊의 모든 情況은 急速度로 變하고 있다. 새 共和國이 出帆하면서 우리 社會가 여러 面에서 刷新되고 急變하고 있음을 우리 皮膚로 歷歷히 느낄 수 있거니와, 創立 10 周年을 來年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協會도 그간 쌓은 經驗을 土臺로 여러 方面에 있어 새로와져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 동안 勿論 實務部署에서 그 말은 바 業務의 改善을 위하여 많은 努力을 기울여 온 것이 事實 이기는 하나, 아직도 業務能率 提高를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할 餘地는 오히려 남아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社會的 與件으로 보나 우리協會의 年輪으로 보나 우리들의 業務는 分明히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고 判斷되며, 우리는 이와 關聯하여 時代感覺을 가져야 하겠다.

1982年度 技術部署 運營計劃을 보면, 一見 平凡한 것 같으나 그 內容을 仔細히 分析한다면 革新的인 個所를 發見하게 된다.

첫째, 對民 서비스面的 改善이다. 우리協會 設立의 根源이 된 特別法이나 定款을 살펴보면 우리協會의 存在意義는 根本적으로 “對民奉仕”에 있다. 그런데 그 동안의 點檢等 技術業務가 勿論 서비스 爲主의 것이었음은 否認하지 못하나 建物所有主가 滿足하기에는 不足한 點이 있었던 것을 또한 否認할 수는 없을 것 같다. 例를 들어서 火災安全上 危險하다고 생각되는 建物 및 施設들이 竣工以前에 徹底히 封鎖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行政命令權이나 設計→許可→竣工 過程에서의 參與權이 排除되어 있는 現實에서 우리가 이에 關與할 方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判斷하고 諦念한 경우는 없었던가? 勿論 우리나름대로 建議, 相談, 設計圖面檢討等을 實施해 왔다고는 하나 그 以上の 積極的인 方法은 果然 없었던가?

이번에 建築設計者, 建築事務所等에 防災技術을 普及하여 根源적으로 不良個所들을 減少시키기 위해 이들을 對象으로 한 指導書를 製作, 提供하는 일을 새로 始作하게 된 것은 平凡한 듯 보이나 실은 積極的인 對民奉仕의 새 기틀을 다지는 데서 그 意義를 찾는다면 상당히 革新的이라고까지 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그 業務名稱이 從前에도 있었으며 繼續 實施해 온 바 있는 業務이지만 昨年에 비로소 새 方法을 開發하여 試圖해 본 所謂 Underwriting Survey 를 올해에도 더욱 發展시켜 實施케 되었다는 事實이다.

이는 技術과 保險業務의 緊密한 연결, 消防檢査의 次元을 훨씬 넘어선 方向의 摸索을 위해 一助가 될 것으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情報處理의 本格化를 豫告하는 各種 調查 및 訓練業務에 力點을 두겠다는 內容이다. 우

리協會는 現在 가히 國內 最大의 防火關係 data를 保有하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data가 다듬어져 有益하게 實際業務에 利用될 수 있도록 information化하지 않는다면 그 價値가 없으며, 物件으로 말하면 단지 raw material에 不過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情報處理의 窮極的인 境地가 컴퓨터의 活用에 있다고 할진대 “千里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俗談대로 이 業務計劃의 重要性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네째로, 外國語 實力向上을 위한 各部署의 自體教育計劃 內容이다. 이를 돕기 위해서 “防火情報”誌에도 語學學習用 資料를 掲載하는 등 1982年은 가히 語學實力提高의 해가 될 것으로 豫想되며, 이로 인하여 關聯業務의 實質的인 向上에도 寄與하게 되리라고 期待해 본다.

다섯째, 우리는 防災試驗所 關聯業務計劃에 注目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는 別途로 言及할 機會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이 자리에서는 그 意義에 대해서 省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機會에 한 가지 添言해 두고 싶은 事項이 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澎湃해 있는 否定的思考方式, 消極的思考方式을 拂拭하지 않는 한 아무리 巨創한 計劃을 作成한들 無爲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事實이다.

“우리協會가 장차 컴퓨터를 使用한다고? 30年後에 가서야 論議할 問題를 벌써 꺼내다니...”, 혹은 “防災試驗所라니? 꿈속에서나 이야기할 課題가 아닌가?” 하는 式의 消極的인 姿勢는 버리자는 것이다.

“노먼 빈센트 필”博士는 그의 名著인 “積極的인 思考方式”에서 積極的인 思考方式이 가져다 주는 奇蹟은 常識과 豫想을 뒤엎는다고 喝破한 바 있다.

轉換期를 맞는 우리는 사람들이 不可能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可能하도록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消極的인 姿勢와 批判만 하는 姿勢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協會의 展望은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왜 있지 않은가, 저 有名한 俗談이.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는 법-

